

# 민주 지방의장 선거 '해당행위' 논란

경선 불복 광주 서구·광산구 의원 진상조사

나주지역위원회, 시장·시의원 2명 제소 검토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모두 마무리됐지만, 사실상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 '해당(害黨)행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정가가 시끄럽다.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11일 광주 지역 일부 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로 나서 물의를 끊은 구의회와 해당 의원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당은 또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 '휴대

폰 인증샷' 논란을 불러일으킨 A의원과 당내 경선에 불복해 의장 후보로 나온 B의원 등 2명에 대해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최근 나주시장과 시의원 2명을 중앙당에 '해당 행위'로 제소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당직자들이 나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임실했던 나주시장과 시의원 2명이 무소속 시의원들과 뜻을 같이해 무소속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협조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당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시장 및 해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워 고심중"이라며 "조만간 지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앙당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시장은 "공직자로서 선거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모든 선거에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단체장에게 같은 당 소속이라고 선거에 개입하라면 어떻게 민주주의 선거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또 시의원 A씨는 "원 구성 때 무소속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초 합의했던 사안대로 전반기 의장과 상임 위원장을 후반기에는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약속돼 있어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인데 그게 무슨 해당행위냐"고 목청을 높

였다. 지역정가에선 이처럼 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사실상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의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의장 선거에 관여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고 위원회는 지방의회 원구성에 앞서 민주당 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은 뒤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안과 다른 정당과 무소속과 연대할 경우 징계처리를 한다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방의회에 제시했다.

/취임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 여수박람회 관람객 400만 돌파

### 학생·단체 방문객 급상승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박람회 조직자는

18일 "이날 오후 6시 현재 6만8899명 입장해 누적 관람객 수 405만104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박람회 개장 이후 지난달 2일 누적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고, 이후 6월 20일 200만 명을 기록한 이어 이달 7일에는 300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특히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관람객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11일만에 100만명 이상이 찾는 등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직위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놓은 체험학습자료가 큰 인기를 끌며 해양베스트관과 해양산업기술관 등 전시관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덕분에 학생단체 관람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관람객 수의 급상승 요인 중 하나다.

또 '지자체 방문의 날'을 운영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체 관람객의 방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추세라면 개장 초와는 달리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입장 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초에는 목표 관람객 수인 8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박람회 덕... 연안여객선 수송 10% 늘어

여수세계박람회 열기로 연안여객선 수송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지난 6월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719만5천명으로 집계돼 작년 상반기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여전 항로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무려 66% 급증한 15만명이었고, 목포~암태(22만6000명·36%↑), 제주~완도(24만8000명·42%↑), 목포~울릉(17만1000명·44%↑) 항로의 승객도 크게 증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람회 '직지홍보관'

청주시는 18일 지자체 문화의날 맞아

여수엑스포 지자체관에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직지홍보관'을 설치, 사흘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금속활자 인쇄 시연을 하고 있다.

### 오늘의 여수엑스포

국내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캡페스티벌은 이번 박람회 히트 상품 중 하나다. 오늘 공연에는 강경아이돌이 데뷔하는 백지영과 율랄라세션이 초대됐다. 여수발바다를 화려하게 장식할 호소력 있는 백지영의 목소리와 유타라세션의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해녀심포지엄  
(컨퍼런스홀·오전 10시)

△국가의 날-이스리엘  
(엑스포홀·오전 10시)

△티쓰

(천막극장·오전 10시/20분)

△액션 드로잉 여수  
(천막극장·낮 12시)

△목포문화의 날  
(전통마당·오후 2시)

△모리타니 문화공연  
(전통마당·오후 4시)

△팜페스티벌-백지영, 유틀라 세션(특설무대·오후 8시)

△어제의 관람객수=6만8899명(17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수=405만4616명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北 김정은 '원수' 칭호

김정일 사후 7개월만에 '중대보도' 통해 발표

북한은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은 이날 낮 12시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의 중대보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후 7개월 만이다.

과거 호위사령관 등을 지낸 리설역 역시 원수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북한 대표한다는 의미가 담긴 '공화국 원수'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주석은 39살이던 1953년 2월 원수 칭호를 받았고 사망하기 2년 전인 1992년 대원수에 추대됐다. 50살이던 1992년 원수 칭호를 받은 김정일 위원장은 사후 대원수에 올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북한과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실각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김치·막걸리 수출길 열어달라"

### 외교부, 24일 무역회담서 中에 요구

김치와 막걸리를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한·중 간에 논의된다.

외교부는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중국에 발효식품의 위생기준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험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김치와 막걸리가 중국에서 팔리고 있지만, 중국엔 발효식품 위생기준이 없어 공식적인 수출경로는 막혀있다"

며 "중국과 발효식품의 위생기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역색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방침이다. 드리미와 영화 등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는 방안과 우리나라 상표가 중국에 무단으로 선등록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종합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에 지점을 내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수세계박람회 열기로 연안여객

선 수송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지난 6월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719만5천명으

로 집계돼 작년 상반기보다 10% 증

가했다"고 밝혔다.

여수 돌산도와 금오도를 있는 신

우수 관광지로 손꼽힌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화시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출신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농성동(원룸) 대구 2465㎡  
김정기 4억6천  
최저가 3억2천

영암삼화[근린시설] 대구 77㎡ 21.152㎡  
김정기 9억2천  
최저가 15억1천

화순도곡 [방원작립] 대구 3234㎡ 2,44280㎡  
김정기 4억3천  
최저가 15억1천

전주우아동[나이트] 대구 794㎡ 2,3938㎡  
김정기 47억4천  
최저가 24억

신안동[스포츠터미널] 대구 326㎡ 2,5984㎡  
김정기 69억3천  
최저가 12억7천

치평동[유동주점] 대구 64㎡ 944㎡  
김정기 19억8천  
최저가 12억7천

중흥동[방원작립] 대구 705㎡ 2,2510㎡  
김정기 12억7천  
최저가 44억7천

유동화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농성동[목욕탕] 대구 91평  
김정기 10억  
최저가 4억7천

대구 798평 ▷ 건물 5346평  
김정기 92억9천  
최저가 15억1천

대구 222㎡ ▷ 건물 152㎡  
김정기 42억3천  
최저가 24억

대구 128㎡ ▷ 협의[후결정]

용봉동[하이스포츠] 대구 4076평  
김정기 5159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울산울주[숙기마] 대구 2455평  
김정기 1892천  
매매가 9억 [협의[후결정]]

전북완주[봉동공장] 대구 7125평  
김정기 135억  
매매가 80억[분할기능[협의[후결정]]]

전북완주[봉동공장] 대구 5456평  
김정기 48억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전북완주[봉동공장] 대구 1708평  
김정기 43억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경기[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737평

▶ A필지 도시형생활주택(29평형) 20세대 건축허가필

▶ B필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타입) 48세대 건축허가가능